

일본 온주밀감 주산지 사세보 탐방기와 나의 실천의지

김 중 우 (독농가)

H · P : 011-699-1473
E-mail : hl4vl@hanmail.net

지난 겨울 일본 규슈에 있는 사세보에 가서 감귤의 과실품질이 좋지 않아 일본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지역이 어떻게 최고 품질의 과실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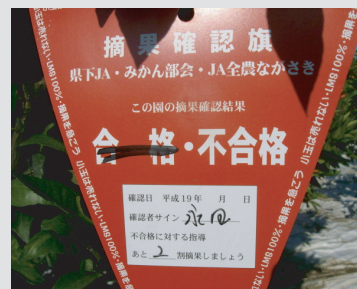
사세보 감귤산지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각자의 개별 활동이 아닌 조직체를 구성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서 각 구성원별로 충실한 역할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최고품질의 과실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와 같이 개인생산, 중간상인 일괄 판매, 균일하지 못한 품질 등 시장 교섭력이 약한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첫째 생산에 있어서는 방풍수를 제거시켜 햇빛의 양을 증가시키고, 타이벡 설치로 수분을 조절하고, 구분 수확을 통하여 품질을 균일화 시키는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타이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벌은 필수였고 또한 배수가 잘되도록 높은이랑과 좁은 배수로를 만들었다(사진 1). 타이벡 효과가 단지 수분조절과 반사산란광만이 아닌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최고 권위자중의 한 분인 무라마쓰씨의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다. 규슈 사세보의 경우 10년 전만해도 일본 내 와카야마, 구마모토, 시즈오카 등에 비해 품질 수준이 뒤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사세보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행정의 마음이 맞추고 행정은 높은이랑, 배수로 정비 등 기반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농가는 간벌과 타이벡 재배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현재는 일본 최고의 감귤 생산단지로 변모했다고 한다. 타 지역의 경우 극소수만이 브랜드 감귤을 생산하지만 사세보의 경우 70% 이상이 고품질 생산을 하고 있었다. 데지마노하나(出島華, 당도 14 이상, 산도 1%미만)의 경우 90%가 사세보 지방 생산이며 이곳 브랜드로 정착하여 도쿄(東京)에서 개당 300엔(농가 수취가격 개당 70엔) 정도 한다니 믿기 힘들 정도다. 또한 13도 이상 3%, 12도 이상이 66%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브랜드 과원 등록제도를 통해 사전에 품질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기술지도, 주기적인 품질검사(20일간격), 그리고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며 전정, 적과 등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농가 의식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필자가 여러 과수원을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나라 지뢰표시 같은 표지(사진 2)를 설치하여 농가 스스로 실천하게 하고 있었다. 우리와 같이 수확기에만 품질 수준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수확기까지



〈사진 1〉 타이벡 피복 전경



〈사진 2〉 적과 확인표시

꾸준한 관리로 고품질 과실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행정에서는 각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 배수로 설치, 높은이랑 기반조성, 방풍수 정리 등 과원 기반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 한다.

셋째 판매에 있어서는 비파과 광센서와 푸크리프트 등을 도입하여 선과 및 판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배면적 377ha에 생산자가 335호로 농가당 대략 1 ha 정도인데 대부분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평균연령 60세 이상이 55% 이상임에도 힘들게 농사짓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원한 간벌을 통해 나무사이로 SS방제기가 쉽게 다니니 병해충 방제는 어렵지 않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우리보다 적어도 가격은 몇 배 이상 받으니 모든 경영비 절감 등과 함께 훨씬 고소득을 올림으로써 감귤 농업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또한 비파과 선과 전에 농가의 과실품질을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간이형 비파과 선과기를 도입하여 입고 즉시 본인이 생산한 과실 품질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 제주의 경우 예전에는 아무리 고품질 과실이라도 저품질의 과실과 비교하여 가격차가 별로 없어 오랫동안 감귤 재배 농가들은 품질보다는 아직도 양 위주로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제 대한민국 소비자들도 맛있는 밀감은 kg당 300원 정도만 주고 구매하지만 브랜드 감귤인 경우 이보다 10배나 많은 3000원 이상 주고 구입하는 것을 우리는 2007년산 감귤에서 경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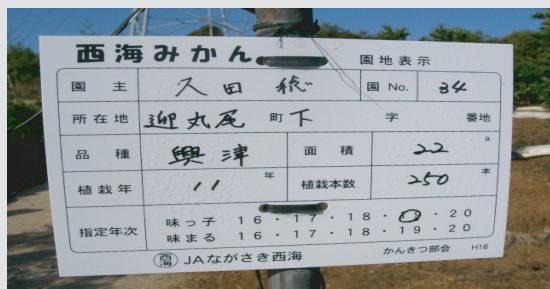
넷째 구분 수확과 입고도 특이했다. 대부분이 고령인지라 하루 입고량은 20~30 컨테이너로 라보 같은 소형트럭으로 입고 하였고 하루 수확량도 가족 단위로 750kg(200관) 미만의 철저한 구분 수확이었다.

이처럼 간벌 등으로 잘 정돈된 과수원, SS방제기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타이벡을 쉽게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높은이랑 재배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방풍수를 제거해 놓은 감귤 과원은 누구 보아도 욕심이 생기게끔 했다. 만약 젊은 자식에게 이런 돈 되는 과수원을 물려준다면 시골을 떠나 타향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훨씬 줄어 들것이다. 명예퇴직도 없고 열심히만 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이런 좋은 직장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번 사세보 방문을 통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실천의지를 소개해 본다. 첫째 우선 간벌이다. 독립수가 되어 150kg(40관) 이상 생산하는 나무를 자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간벌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둘째 타이벡 재배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다만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효율적인 설치가 중요한 것 같다. 셋째 고품질이 어려운 평지에서는 높은이랑 재배 혹은 차수막 설치 재배를 적용해 보아야겠다. 넷째 올해 처음으로 해 보았던 감귤나무를 땅속에서 들어 올린 후 파쇄목 집어넣는 재배법을 내년엔 추가해 보아야겠다. 다섯째 어떤 일이 있어도 농장 300일 이상 출근을 재시도해 보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얼마 아는 것은 없지만 그나마 조금 아는 상식만이라도 실천함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김 종 우

- 현대전자 부장(전)
- 제주시한라봉연합회 사무국장
-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현)
- 고품질감귤PM연구회 회장(현)



〈사진 3〉 과수원 표시



〈사진 4〉 간이형 선과기 선과 장면